

꽃씨장

봄꽃 2기 결과물영양회
NONO 시민영양미디어 상재회 대표상회



2020 시민영양미디어 상재회 지원사업



재단법인 숲과나눔
Korea Safety Health Environment Foundation



재단법인 숲과나눔
Korea Safety Health Environment Foundation

-  02-6318-9000
-  koreashe@koreashe.org
-  koreashe.org
-  facebook.com/koreashe
-  @korea.she
-  blog.naver.com/korea_she

꽃씨장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플꽃은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사업, 운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2020 시민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풀꽃 2기 결과공유회

꽃씨장

04

숲과나눔을
소개합니다

07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풀꽃

08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풀꽃

10

풀꽃 2기와 함께한 시간들

12

숫자로 보는 풀꽃 2기

14

풀꽃 2기 ①
더 피커(the Picker)

24

풀꽃 2기 ②
자몽

34

풀꽃 2기 ③
저탄소밥상

44

풀꽃 2기
포토스케치

46

풀꽃과 함께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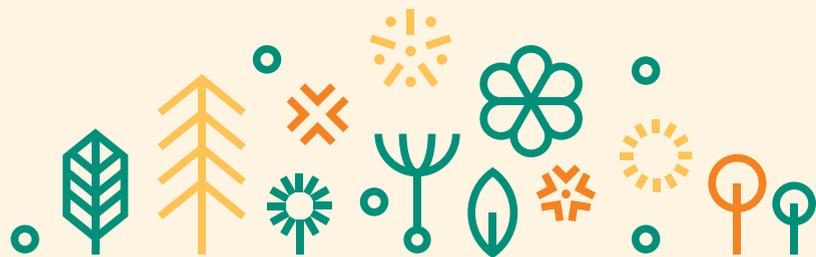
48

시민아이디어 전국화
지원사업 풀숲

숲과나눔을 소개합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가정·일터·지역사회의 환경이
숲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여망이 모여 만들어진
비영리 재단입니다.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과 대안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숲과나눔 주요사업



인재를 키웁니다

인재양성사업

문제 해결 능력과 공공 사회의 신뢰를 갖춘 핵심 지도자급
인재를 양성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

아이디어와 대안을 만듭니다

대안개발사업

국가·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안과 담론을 만듭니다.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담론을 개발, 확산합니다.

고민과 해법을 나눕니다

협력사업

지역사회의 환경·안전·보건 문제의 고민과 해법을
나눕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인식 향상을 돕습니다.

단계별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1단계 풀씨

아이디어 지원 : 팀 최대 300만원

난제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발굴하고, 직접 실험해보도록 장려합니다.

풀꽃

2단계 풀꽃

사업화 지원 : 팀 최대 2천만 원

1단계의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스타트업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풀숲

3단계 풀숲

전국화 지원 : 팀 최대 2억원

2단계의 사업이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합니다.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풀꽃

풀꽃은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 규모의 활동
※ 조직 성격(영리사업, 주식회사,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등록단체 등) 및 활동 형태(캠페인, 워크숍, 콘텐츠
제작, 교육, 연구, 출판 등) 무관

지원 내용

사업비 팀당 최대 2,000만 원, 멘토링, 네트워킹 등
연 최대 10개 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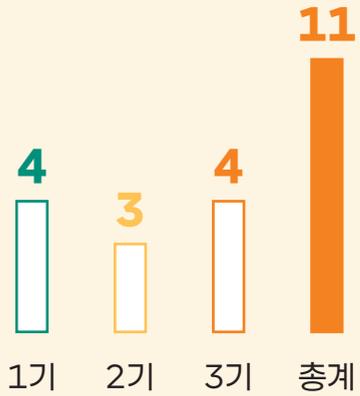
지원 대상

풀씨 활동팀 중 2인 이상인 팀
※ 풀씨 활동 아이디어로 팀원 총원 및 팀 간 연합 지원 가능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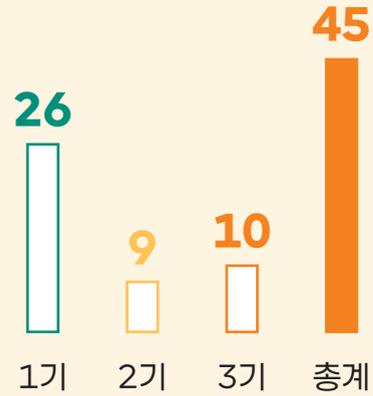
활동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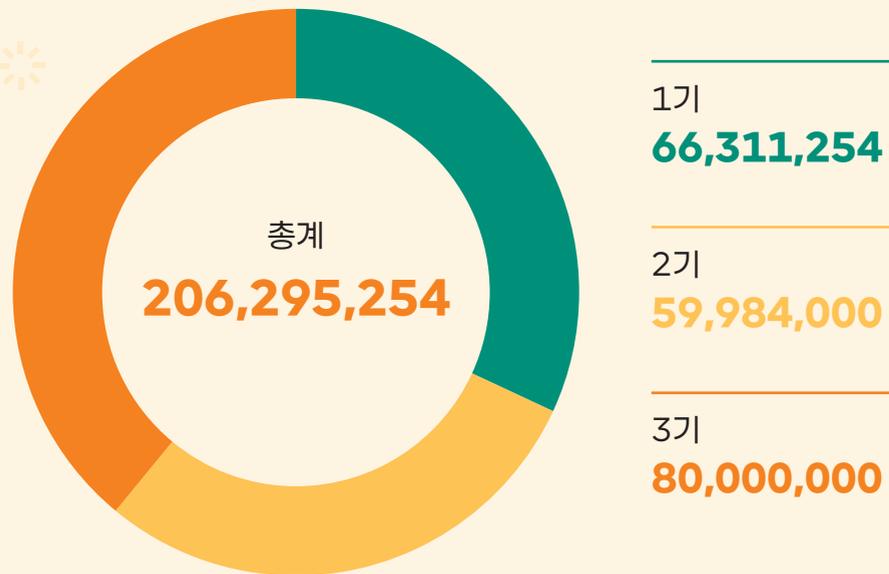
활동인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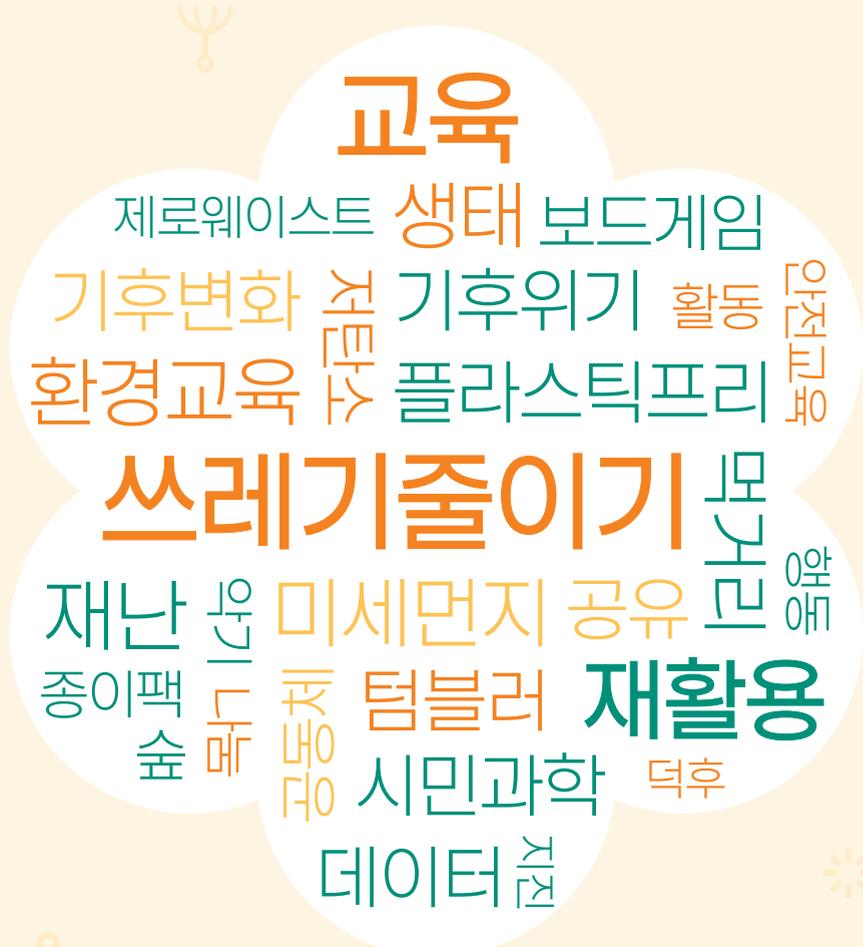
지원금액

(단위: 원)



※ 1기는 실지원액, 2~3기는 약정액

활동분야



플꽃 2기와 함께한 시간들

2019.6.18 ~ 2020.6.30

2019

6.18

플꽃 설명회



7.2-14

지원기간

7.15-18

서류심사

7.23

면접심사(PT발표)



7.31

최종선발

8.13

오리엔테이션



2020

10.22

1기, 2기 네트워킹



2.20

중간보고



4.28

2기, 3기 네트워킹



6.30

결과공유회

숫자로 보는 풀꽃 2기

활동인원
3팀 9명

활동기간
379일
사업공고부터
결과공유회까지

지원금액
59,984,000원
콘텐츠 제작, 행사 개최,
시스템 구축, 사업 홍보 등

팀별성과

더 피커

2,964kg의 폐기물 감소,
오픈 행사 5회 진행, 144명 참여

자몽

피프프리미(pfree.me) 콘텐츠
147개 포스팅,
유튜브 채널('금자의쓰레기덕질')
조회수 44,000회 돌파

저탄소
밥상

먹거리 기후행동 레시피
'THE 하기'(thehagi.kr)
개발 및 보급

1

더 피커 (the Picker)

메일 hello@thepicker.net

홈페이지 thepicker.net

인스타그램 [@thepicker](https://www.instagram.com/thepicker)

the Picker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실제 소비 기반 확산 모델 구축

풀씨 주요활동 (풀씨 2기)

- 시민 대상 제로웨이스트 클래스 진행 (2회)
- 제로웨이스트 관련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풀꽃 사업계획

- 쓰레기 없는 매장의 운영체계 및 제품 선정 기준 체계화 실험적 운영
- 제로웨이스트숍 운영, 공유 용기를 활용한 선주문 시스템 적용
- 건강한 소비문화 회복을 위한 자급자족 클래스 운영
- 정부,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공유

풀꽃 사업결과

- 사업기간 동안 2,964kg의 폐기물 감소 (소비액 대비 폐기물감소량)
- 협업기관 총 8개 (정부 1개 부처, 대기업 7개)
- 매장 오픈 행사, 자급자족 클래스 등 5회 진행, 144명 참여

더 피커가 보유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을 확산모델로써 정비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제로웨이스트 구매행동까지 이르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IT기반 선주문 시스템과 클래스 콘텐츠를 추가 마련하여 확산모델을 외부 단체에 적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인터뷰

포장을 포기하는 일



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흔한 비닐 봉투가 없습니다.
 이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장바구니와 곡물을 담아갈 용기를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편을 감수하고 고객들이 끊이지 않아요.
 이곳은 성수동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zero-waste) 매장 '더 피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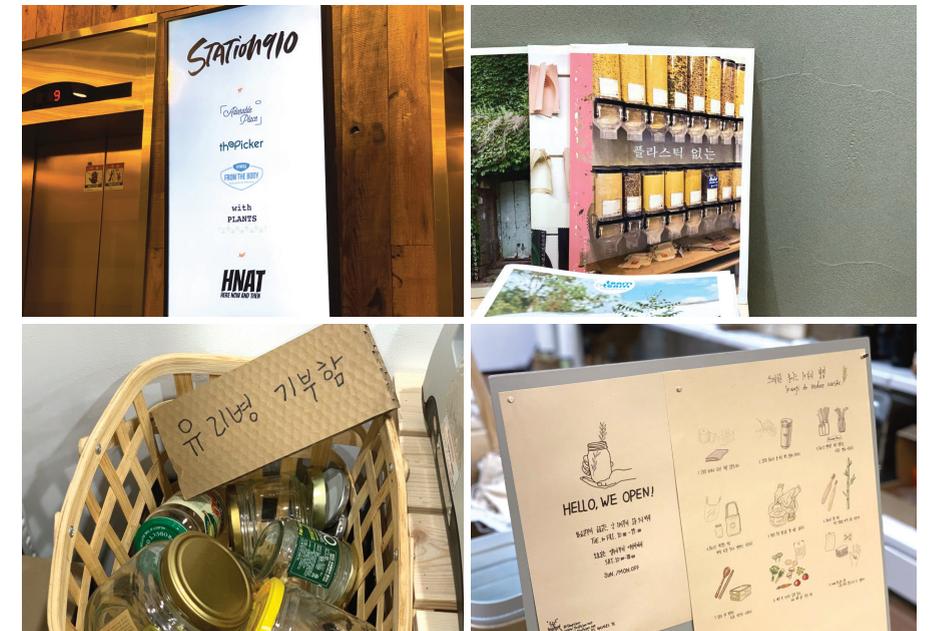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간인 헤이그라운드. 최근 오픈한 서울숲점 9층, 그 곳에 '더 피커'가 있습니다. 헤이그라운드에 있다는 건 2016년 성수동 한 칸에 자리 잡은 이후, 더 피커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풀씨 활동부터 풀꽃 심사, 풀꽃 팀 네트워킹까지 몇 번의 사업소개와 활동들을 들었지만,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 더 피커 매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미소가 멋진 송경호 대표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성수동에서 나름 예쁘고, 유명했던 매장이었는데 이곳으로 이전한 이유가 먼저 궁금했습니다.

“예전 매장은 그로서란트 매장(식재료와 레스토랑을 결합한 형태의 매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소비방식,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방식들을 쉽게 소개하는 '접근과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치였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인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3년 정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이제는 좀 더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을 생각하게 됐죠. 제로웨이스트 '문화정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비기반 확산모형을 구축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장은 삶에 녹아들게 하는 단계, '실천의 기준'을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공유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좀 더 실험적인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적인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헤이그라운드와 협업을 할 수 있어 옮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초창기에 저희 매장이 설치 미술을 하는 쇼룸(show room) 인줄 알고 들어왔다가 취지를 알고 가시는 분도 계셨죠. 저희가 생각했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물을 여행하다

매장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그리 넓지 않은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는 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곡물 디스펜서(각종 채소와 곡물을 벌크로





판매하기 위한 장치)는 볼 때마다 꼭 한번은 사용하고 싶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장 오픈 행사를 특별하게 ‘도슨트 투어’로 진행했다고 하네요.

“사물을 여행하다’라는 주제로 제품들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더 피커가 판매하는 물품들은 5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생산과정인 친환경적인가(생산), 유통과정인 길지는 않은가(유통), 포장인 재사용가능하거나 최소의 포장인가(판매), 다회용이고 환경에 무해한가(사용),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나 재활용 또는 분해되는가(폐기) 하는 조금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 또 5가지 전체 단계가 물품의 스토리라고 봤을 때 물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이 매장이 아니라 박물관이고 유물들을 발굴해 나가는 마음으로 둘러보면 재밌을 것 같았죠. 저희의 기준을 개인에게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도슨트 투어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공식적으로 2번 진행, 비공식적으로

2번을 더 진행했는데 매번 2시간 이상의 질의와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더 피커를 만나고서부터 지금까지 궁금했던 ‘더 피커’의 의미를 이제 서야 물어보았습니다. “영어 ‘Picker’는 ‘수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매장에서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들을 수확해가는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피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매장 한켠에 있는 흙 문은 고구마, 한 알 한 알 담아야 할 수 있는 소프넛(soap nut), 제품마다 적혀있는 설명들을 읽어보며 쇼핑을 하는 과정이 수확하는,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구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 제안

마침 한 무리의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섰는데 손님들은 분주하게 통화를 하며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이유를 조심스레 물어보니

학교 졸업작품인 친환경 소품 키트 제작을 위해 방문한 대학생들이고, 직접 사용해보니 너무 좋은 물건이 많았으며 학교가 있는 인덕원에서 2시간이 걸려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10분 쇼핑을 위해 2시간을 달려온 대학생들을 보며 송 대표에게 요즘 노 플라스틱(no plastic), 제로웨이스트가 유행인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더 피커에게 제로웨이스트는 하위개념이면서 없어졌으면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소비문화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쓰레기’라는 것에 문제를 못 느끼다가 최근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문제, 해양 플라스틱 문제 등 여러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쓰레기,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쓰면 좋고, 어떤 걸 쓰면 안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택배 박스를 친환경적으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코팅 된 종이를 쓴다거나 스티커로고를 계속 사용하는 것, 개인 차원에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절대로 안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존 제품들을 모두 버리고

친환경 제품으로 모두 바꾸는 급진적인 모습들은 오히려 건강한 소비가 아닌 것 같아요. 플라스틱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어떤 걸 사용해야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건강한 소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상황들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또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모습에 대한 감시, 지적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면 금방 끝나 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닐 포장을 줄여요, 플라스틱을 줄여요 라고 외치면서 이런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제안하고, 지구에게도 덜 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급자들도 바뀌고 소비자들도 변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꾸준히 실천해야 하겠지요. 장재연 이사장님이 쓰신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급진적으로 명확한 것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전반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에 아주 공감합니다.”

송 대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잠깐의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더 확장되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실천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씨와 플꽃의 경험, 어땠는지?

조금 분위기를 바꿔 숲과나눔과 함께하고 있는 소회를 물어봤습니다. 더 피커는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인 ‘플씨’ 2기 활동을 거쳐,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꽃’ 2기(11개월 활동)에도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폴씨는 지인으로부터 혁신적인 지원프로그램이라며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폴씨 1기에 지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 시기가 맞지 않아 2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선발이 되고 보니, 정말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혁신적이었어요. 지원금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해 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죠. 저희는 제로웨이스트 클래스와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폴꽃은 선정과정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면접심사는 평가가 아닌 멘토의 느낌이었는데요, 그때 심사위원님들이 해주신 조언들을 활동에 접목하고 있고 성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에 대한 것들이 중요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질문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폴씨, 폴꽃 사업이 지향하는, 결과가 크든 작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네트워킹, 결과 공유회 등을 통해 폴씨, 폴꽃 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시야도 확장이 되고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협력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건강한 소비문화의 회복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더 피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열된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팔려 수익이

늘어나고 매장을 더 확장해 더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일 거라 생각했는데, 송 대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더 피커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소비문화의 회복’입니다. 노 플라스틱, 제로웨이스트가 유행처럼 번져서 저희 매장이 더 유명해지고, 소위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 건강한 소비문화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매장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더 피커와 처음부터 함께 해 온 홍지선 대표가 손님에게 제품 설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미소 속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 포장까지 꼼꼼하게 챙겨 진열한 상품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이 꿈꾸는 건강한 소비문화의 회복이 멀지만은 않게 느껴져 두 사람의 ‘진심’을 진심으로 계속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2

자몽

메일 yujc1084@gmail.com

홈페이지 pfree.me

인스타그램 [@pfree.me](https://www.instagram.com/pfree.me)

유튜브 [금자의 쓰레기덕질 ZeroWaste](https://www.youtube.com/channel/UC1084)



플라스틱프리 콘텐츠 플랫폼 '피프리미(pfree.me)' 개발 및 운영

풀씨 주요활동 (풀씨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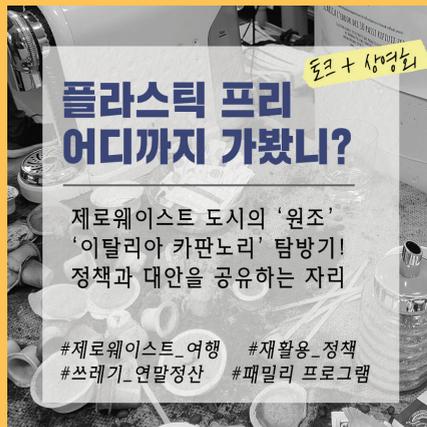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케냐, 인도 탐방 및 콘텐츠 제작
- '플라스틱프리' 영상 2편, 원고 제작 및 배포 (환경영화제 출품 및 수상)

풀꽃 사업계획

- '쓰레기덕후소셜클럽(풀씨 사업 결과물)' 콘텐츠 시리즈 제작 및 배포
- 플라스틱프리 생활 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정기적인 메일링서비스
- 뉴미디어 중심의 콘텐츠 제작과 배포를 통한 플라스틱프리 라이프 스타일 확산

풀꽃 사업결과

- 피프리미(pfree.me) 메일링(격주 발행) 구독자 164명 돌파, 콘텐츠 147개 포스팅
- 유튜브 채널('금자의쓰레기덕질' / 19.12월 개설) 조회수 44,000회 돌파
- 동영상 제작 21개, 소분샵 컨설팅 30회 이상



인터뷰

쓰레기 덕후들 모여라!



덕후,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풀씨 1기로 활동했던 팀 중에 '자몽'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지원서에서 팀명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좀 특이한 팀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덕후들이 만든 팀이었습니다. 풀꽃 2기에 선정되어 열심히 쓰레기 덕질 중에 있는 '자몽' 팀을 서면으로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자몽' 팀을 한 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금자의 '자'와 혜몽의 '몽'이 만나 자몽처럼 특 쓰고 비타민이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팀"으로 표현했네요. 어떤 활동을 하기에 자몽처럼 특 쓰고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환경운동가와 필름메이커의 만남

팀명이 좀 특이합니다. 과일 '자몽'인가요?

팀명이 어떤 의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이름인 '자몽'은 환경운동가인 '금자'와 필름메이커인 '혜몽'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왔어요. 자몽처럼 비타민C가 넘치는 상큼하고 이로운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에 금자는 활동가였고, 혜몽은 비영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협업을 하면서 동료에서 친구로 발전했죠. 작년 쓰레기 대란 이후로 금자는 여성환경연대를 그만 두고, 1인 활동가로 플라스틱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혜몽도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플라스틱어택>, <알맹@망원시장>, <쓰레기덕질의 일회용 컵 모니터링>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서 협업하면서 풀씨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의 풀꽃까지 이어졌어요. 그때는 팀 인원이 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팀원 '민아'까지 들어와서 셋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이력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팀원 한명 한명이 멀티플레이어 같아요. 팀원들을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우선 금자는 오랫동안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로 일했어요. 아마 거기서부터 다져진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전체 기획자이자, 글 작업, 시민 조직 등을 맡고 있지요. 현재 동네 시장인 망원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빌려주고, 세제를 소분해서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등 '지금 여기'의 대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의 절반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의

반상근 활동가로 유해화학물질 반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몽은 자몽팀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또한 프로젝트 정산, 보고서,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죠. 대학 시절에는 영화학도였고, 우연한 계기로 여성환경연대 작업을 시작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겨 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로 작업해 왔어요. 2017년부터 '필름고모리'라는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작은 그룹을 만들어 주로 성평등과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쓰레기 대란 이후 금자의 제안으로 비닐봉지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다가 결국 케냐, 인도까지 가게 되었어요. 쓰레기 투어를 끝내고 나니까 '플라스틱'을 둘러싼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졌고 다큐멘터리로 작업 중입니다. 민아는 쓰레기와는 거리가 먼 영화학도였는데 혜몽의 제안으로 자몽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주로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지요.

독특한 세 분이 모인 '자몽'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피프리미(플라스틱프리를 실천하는 나란 사람-pfree.me)'라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1월 9일에 오픈했습니다. 피프리미는 플라스틱 없이 살아가 수 있는 대안과 '쿨팁(쿨팁 대신 채식인 용어)' 등 정보를 한데 모으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와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프리에 대한 일상, 정책, 보고서, Q&A 등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팀에서 자체 생산한 숏 다큐 형태의 영상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니 마음껏 방문해주세요 (pfree.me).

그럼, 자문팀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설명드린 피프프리미에는 개인의 팁을 공유하고, 플라스틱프리 정책에 서명도 하고, 플라스틱 프리 지도를 만들고, 업체를 발굴하고, 직접 행동을 꾸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플라스틱 프리 가게나 카페를 추천해주셔도 좋고요. 가장 최근에는 풀꽃 사업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까판노리로 제로웨이스트 투어를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어요. 따끈한 소식들을 글과 영상, 그리고 시사점을 나누는 자리를 피프프리미와 유튜브 채널 (@금자의 쓰레기덕질 ZeroWaste)에서 만날 수 있어요.

대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스템

요즘 노플라스틱,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유행(?)인데요, 자문이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는 어떤 걸까요? 그 현장에 계신 자문팀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한국에서도 제로웨이스트 물결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이제는 쓰레기문제가 너무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냥 자체로도 힘 한게 있어요. 사실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내 생활방식을 바꿔야 가능한 것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지금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서로의 팁을 공유하고, 제로웨이스트 가게나 기업을 공유하고, 그들을 응원해주기 위한 당근몹(캐럿몹)*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제로웨이스트 '실천자'들이 모이고 정보를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플랫폼 '피프프리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최근에 이탈리아로 제로웨이스트 케이스 스터디 투어를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기간동안 금자는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유리병에 모았어요. 책 <나는 쓰레기없이 산다>를 쓴 비존슨처럼요. 금자는 기내식까지 참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과일 빵 등을 포장 없이 파는 곳이 많은 유럽이라서 엄청 자신 있어 했고요.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 기차표 영수증이라든지, 휴대폰 심카드, 곁에만 종이 포장이었다 초콜릿 이런 곳에서 예상치 못한 플라스틱들이 나왔어요. 코팅된 영수증이 재활용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차표까지 합치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의식적으로 안 쓰려고 해도 이런 건 대안이 없으니 결국 대안을 많이 만들거나 쓰레기를 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풀씨 활동을 통해 케냐, 인도를 방문해서 '플라스틱 프리' 관련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왜 케냐와 인도였고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무엇이었나요?

풀씨를 시작하기 전에 망원시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알맹@망원시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무료로 주는 비닐부터 줄여보려고 장바구니 대여도 하고 자기 용기를 사용하는 분들과 지역 화폐를 인센티브로 주고,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상인들도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당근몹(Carrot Mob): 구매력이라는 당근을 통해 사회와 환경을 위해 보다 나은 변화를 약속 및 실천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구매하는 소비자 운동.



자발적 변화가 어렵다면 강력한 제도로 벌금을 물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아예 못 쓰게 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비닐봉지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인도 카르타나카주와 케냐를 가기로 했어요. 케냐는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였고 벌금으로 최대 4000만 원 이상을 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십 년간의 싸움이 있었고요. 인도 카르타나카주는 2016년부터 일회용 수저, 현수막까지 포함해서 비닐봉지와 일회용품 규제를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콘텐츠로 영화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상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쓰레기덕후소셜클럽' 소개 좀 해주세요.

'쓰레기덕후소셜클럽'은 풀씨 사업으로 다녀온 인도와 케냐, 그리고 한국의 쓰레기 덕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만나고 들은 쓰레기 덕후 이야기들을 우리만 알면 안 되겠다, 짧은

동영상으로 4개 정도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신나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다급 다큐가 됐고, 환경영화제 숨 단편 대상을 타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다큐멘터리 피칭 부분 대상인 옥랑문화상도 받게 되었어요. 현재 '쓰레기덕후소셜클럽' 단편(38분)은 환경부를 통해 학교에 상영되기도 하고, 저희 쪽에서 신청을 받아 상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엔 장편이 완성되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상영될 예정이라 단편을 적극적으로 상영하지는 않고 있어요. 국제서울여성영화제에서 장편이 상영된 이후 배급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풀꽃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이탈리아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인도, 케냐에 이어 유럽의 쓰레기덕후들과 정책을 살펴보려 다녀 왔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유럽 제로웨이스트 시티의 원조인



까판노리(Capannori) 사례는 영상 정보가 많지도 않고, 마침 '제로웨이스트 유럽'에서 밀라노와 까판노리로 케이스 스터디를 떠난다고 해서 다녀왔죠. 약 15명의 스웨덴, 폴란드, 멕시코 등 전 세계 쓰레기 덕후들이 2박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며 쓰레기 이야기만 나누는 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라는 느낌이 좋다

어떻게 숲과나눔의 풀씨,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망원시장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비닐봉지 규제가 강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제 가서 보고 싶었어요. 인도나 케냐 같은 나라들 사례는 국내에서 많이 다루지 않기도 했고요. 마침 풀씨 사업을 만나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해보고자 하는 바를 시도하도록 믿고 지원해주는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짧은 동영상만 만들어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가 점점 일이 커졌죠. 이 커진 마음을 담아 풀씨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다큐가 아닌 짧은 동영상들을 만드는

일, 그리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플라스틱 프리 콘텐츠를 모아 알기 쉽게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풀씨, 플랫폼 사업이 다른 자원사업과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는 한 명은 활동가이자 글로 말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영상 크리에이터로 영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단체나 조직이 아닌 개인이고, 이질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마음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숲과나눔의 지원은 저희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밑감을 깔아주었어요. 그리고 단기간 성과를 중시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멘토링해주셔서 든든한 멘토처럼 여기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업 후원자와 사업 수행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라는 느낌이 좋습니다.

활동을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팀으로서의 어려운 점보다는 플라스틱프리가 중요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실제 사람들이 일회용의 편리함을 잘 포기하지 않는 현실이 가장 어려워요. 한 손에는 일회용 컵을 들고서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순간에는 운동이 가야 할 일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함께’의 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탈리아, 케냐, 인도의 플라스틱 프리에 대한 짧은 동영상과 제로웨이스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으로 정보를 유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콘텐츠를 ‘자몽스럽게’ 잘 꾸려나가야죠. 2020년 한 해 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콘텐츠를

재미있게 잘 풀어내 보겠습니다. 쉬운 정보부터 전문적인 정보와 액션까지 꼭꼭 씹어서 사람들이 쉽게 소화하도록 죽으로 만들어 제공하고자 합니다. 뉴스레터 구독해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풀씨, 플랫폼 팀들과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팀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풀씨 사업팀 중 플라스틱프리 운동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함께 활동하거나 내용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액션에 참여할 사람들을 플랫폼을 통해 모으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요. 플랫폼을 통해서 풀씨 사업에 참여할 플라스틱 프리 사업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풀씨를 넘어 플랫폼으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저희도 플랫폼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풀씨 사업이 잘 풀리다니(?) ‘아 이것을 이렇게 발전시켜야겠구나’ 감이 오더라구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저 저희에게 와주었다고 할까요. 여러분들께도 그 감이 온다면 흘러보내지 말고 ‘고잉 온’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랫폼도 있고 풀숲도 있으니까요.

자몽의 덕질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영화제작, 다양한 강연과 행사, 플랫폼 제작 등 팀원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 많은 덕후들을 만나고, 덕후들을 만들어 결국에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플라스틱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3

저탄소밥상

THE
하기

메일 yhlee@naver.com

홈페이지 thehagi.kr

개인 맞춤형 저탄소 식생활 코칭 프로그램 앱 개발 및 보급

기후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대인의 식생활 문제(육식, 음식 포장재, 수입 식재료)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기후 행동 프로그램 형태와 방식을 탈피한, 나만을 위한 먹거리 기후행동 프로그램 'The 하기'(thehagi.kr)를 개발 및 보급합니다.

풀씨 주요활동 (풀씨 2기)

- 채식 식단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효과 분석, 홍보자료 작성 및 홍보
- 시민정책포럼 <당신의 밥상이 남긴 발자국> 개최(2019.5.30)

풀꽃 사업계획

- 저탄소 밥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맞춤형 콘텐츠 구조화
- 개인 맞춤형 저탄소 식생활 코칭 프로그램 앱 개발 및 보급

풀꽃 사업결과

- 먹거리 기후행동 레시피 'THE하기'(thehagi.kr) 개발 및 보급
- 'THE하기' 런칭 포럼 개최(온라인)
- '리듀스테리언' 명칭 공모전(80개팀 참가, 수상작: 고기 줄이미, 주리스 Zooless, 레스미터, 고기어터)

* 리듀스테리언(reducetarian) - reduce(줄이다)와 vegetarian(채식주의자)의 합성어로 동물성 식품소비를 줄이려는 사람.



인터뷰

끼니도 연구하며 먹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그 중에서 고기는 얼마나 드시나요?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이슈인 요즘, 고기섭취를 조금만 줄어도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끼니를 연구하는 플랫폼 2기 '저탄소밥상' 팀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밥집, 아닙니다! 밥상 연구하는 팀이에요

저탄소밥상? 팀 이름이 손에 잡힐 듯 안 잡혀요.
어떤 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식생활을 할 순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팀입니다. 혹시 우리 식생활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개인의 행동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학습지도나 다이어트 운동도 개인 맞춤형 눈높이 프로그램이 있는 세상인데 왜 좀 쉬운 기후 행동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처한 상황, 특성에 맞는 먹거리 기후 행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식생활은 크게 '육류 소비', '음식 포장재', '음식물 쓰레기' 이 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개인과 사회 전체에서 이를 줄여야 하는데 저희 '저탄소밥상'은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저탄소밥상'이라는 이름은 사실 사업 제안 당시에 조금은 급조한 이름이라 저희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계속 고민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제안해 주세요.

팀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님들로 구성된 것 같은데요. 연구소 소개와 팀원들의 역할이 뭔지 궁금해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2009년 설립된 비영리민간연구소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알리고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찾고 제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요. 팀원 중 3명은 연구소 상근 연구원이고 1명은 인턴을 했던 대학생인데 인턴 기간에 저탄소 밥상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3명이 프로젝트 실무를 맡고 대학생 팀원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넘치거나 부족한 건 없는지, 쓸모가 있을지 의견을 주고 있고요.

팀의 사업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결과물(프로그램)이 개인 식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주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맞춤형 먹거리 기후 행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적은 음식이나 재료에 대한 기본 정보, 선택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게임 요소를 접목해 흥미를 끌고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다이어트나 운동 어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미션 달성 여부에 따른 보상과 페널티 같은 게임적 요소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사용자 유형 분류를 하더라도 딱딱한 질문보다는 OX, 사다리 게임처럼 재미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배출량 계산은 다른 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점은 아닙니다.

플써 활동에서는 채식 식단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효과를 분석하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14년부터 시청 구내식당에서 주 1회 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공공급식소만 해도 390개 정도 되죠. 객관적인 효과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동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자제를 시키시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살짝 갈등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결과물을 앱으로 할지, 챗봇으로 할지, 메일링 서비스로 할지와 같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까지도 우리 팀에게는 쓸모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개발 후에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도 고민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의 다짐과 앞으로의 풀씨, 풀꽃 팀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지난번 풀꽃 1기 결과 공유회 때 그렇게 주위에 풀씨, 풀꽃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고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풀씨 준비팀에게는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풀꽃 준비팀에게는 기존 풀씨 활동의 크기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기후변화를 막는 특별하지 않은 실천 방법(고기섭취 줄이기, 제철 과일과 채소 먹기 등)에 조금 놀라셨죠? 우리가 익숙해 있던 식생활을 조금만 바꾸어도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오지 않게 할 수도, 늦출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저탄소밥상' 팀이 선보일 프로그램('The 하기')을 많이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식습관은 어떤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The 하기'(thehagi.kr)를 클릭해 주세요. '저탄소밥상' 팀을 만날 때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팀원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담겨있을 프로그램이기에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한 6주 간의
먹거리 기후행동 레시피

회원가입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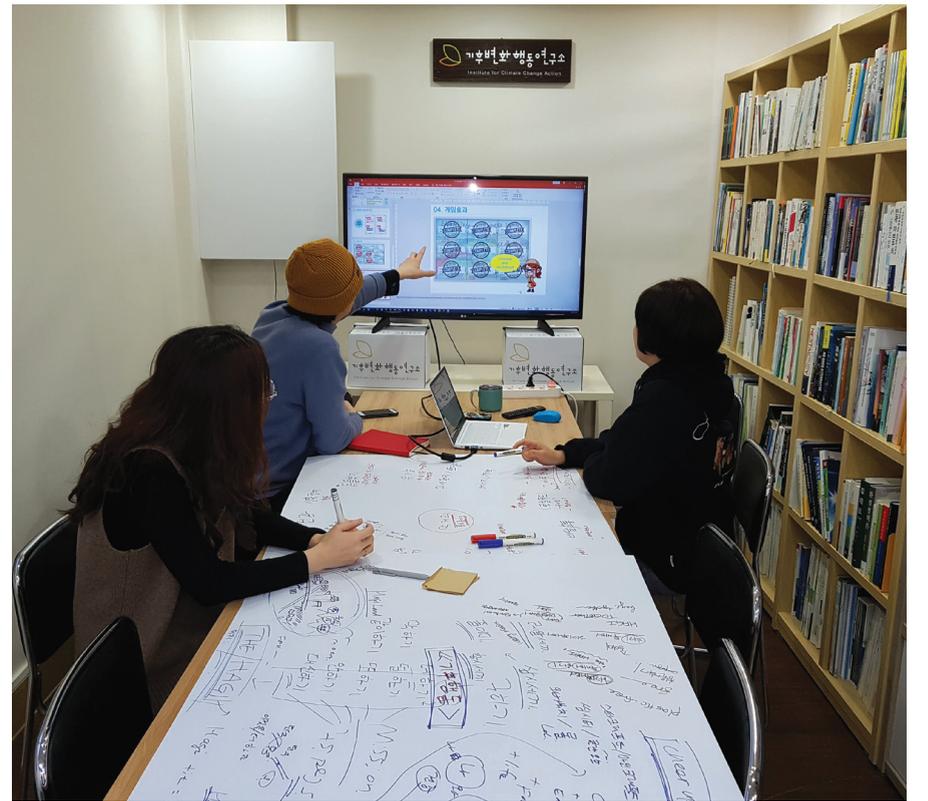
**먹거리 기후행동,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매 순간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도 예전보다 많이 먹는 고기 위주의 식사, 각종 음식 포장재와 일회용품들, 전세계 식재료의 1/3에 해당하는 음식을 쓰레기 등 식생활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후변화의 '원인자'이자 '해결자'라는 말처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슬기로운 식사생활, 먹거리 기후행동이 필요합니다.



풀꽃 2기 스케치



- 1 풀꽃 2기 영상촬영 현장
- 2 풀꽃 2기 오리엔테이션
- 3 풀꽃 2기 중간보고회
- 4 중간보고회 풀꽃 3기와 함께



- 5 풀꽃파티에서 풀꽃 2기
- 6 더 피커 도슨트투어
- 7 더 피커 풀씨잔치에서



- 8 자몽 활동모습
- 9 저탄소밥상 심층인터뷰

풀꽃과 함께하는 사람들

풀꽃 2기와 함께한 사람들



더 피커

송경호, 홍지선

자몽

유혜민, 고금숙,
강민아

저탄소밥상

이윤희, 민경보,
이은선, 조아라

풀꽃 3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보틀클럽

정다운, 박혜진,
신원정

소향

최소연, 최은수,
최준희

시민·되다

한재윤, 여지우

카페라떼
클럽

김지현(왕꽃),
이세형(세모)

풀꽃 3기 소개



보틀클럽

일회용 컵 사용 저감을 위한
'테이크아웃 다회용컵 공유' 서비스 실험

메일 hello.ibeka@gmail.com

인스타그램 [@bottle_factory](https://www.instagram.com/bottle_factory)



소향

<숨이 그린(Green) 마을>을 주제로 한
자연친화적 산촌 마을 관광 프로그램

메일 csy817@naver.com

블로그 <http://sohyang.co.kr>

인스타그램 [@sohyang_eoheul_ri](https://www.instagram.com/sohyang_eoheul_ri)



시민·되다

식물 관찰 역량을 증진하는 ICT융합기능성
보드게임, <나는관찰한다-식물편>개발

메일 cresco@naver.com

페이스북 [facebook.com/be.citizen.SNS](https://www.facebook.com/be.citizen.SNS)



카페라떼클럽

마을과 함께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실험
및 인식개선 캠페인

메일 ifhyun35@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cafelatteclub](https://www.facebook.com/cafelatte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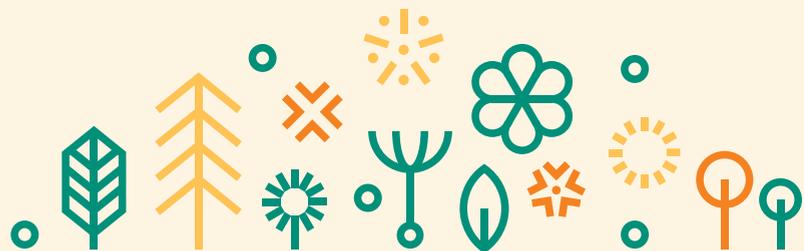
인스타그램 [@cafe_latte_club](https://www.instagram.com/cafe_latte_club)

숲과나눔 전국화 지원사업 풀숲

풀숲은
체계적인 사업으로 성장한 아이디어가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전국 사업화 비용 최대 2억 원 지원

지원 대상 풀꽃 팀 중 풀씨, 풀꽃 팀과 함께 사업을
전국화할 수 있는 팀
※ 조직 성격 및 활동 형태 무관
※ 적합한 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0 시민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풀꽃 2기 결과공유회

꽃씨장

발행처 재단법인 숲과나눔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홈페이지 koreashe.org
대표전화 02-6318-9000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